

# 正倉院 『花嚴經』 권제72-80의 節略 양상과 특징\*

On the Shape of Abridgement of the *Hwaeomgyeong*  
Vols. 72-80 Collected by Shōsōin

金星周 (Kim, Seong-Ju)\*\*

## ◁ 목 차 ▷

- |                     |                  |
|---------------------|------------------|
| 1. 서 언              | 5. 정창원 『화엄경』의 특징 |
| 2. 正倉院 『花嚴經』의 形態 書誌 | 6. 결 론           |
| 3. 正倉院 『花嚴經』의 構成    | <참고문헌>           |
| 4. 正倉院 『花嚴經』의 節略 樣相 |                  |

## < 초 록 >

이 글은 일본 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주본 『화엄경』 권제72-80의 절략 양상을 중심으로 이 문헌의 특징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節略이란 원문을 그대로 베껴 쓰지 않고 중간 중간 발췌에서 쓰는 서사 행위를 말하는데 일본 東大寺에 소장되어 있는 주본 『화엄경』 권제 12-20과 함께 정창원 『화엄경』도 대표적인 절략본 사경이다.

정창원 『화엄경』의 잔존율은 44.2%로 동대사 『화엄경』의 29.4%에 비해서 잔존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화엄경』의 중요 부분이 전개되는 동대사 『화엄경』이 입법계품을 내용으로 하는 정창원 『화엄경』보다 잔존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게재율을 산출해 본 결과는 그 반대이었다. 그것은 정창원 『화엄경』의 편집자들이 교학적인 내용을 위주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화엄경』의 전체 스토리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이 문헌을 편집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何等爲十’을 제시해 놓고도 실제 예는 처음의 한두 개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정창원 『화엄경』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텍스트를 생성하지 못하고 원본 『화엄경』의 보조적인 문헌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이외에 이 글에서는 정창원 『화엄경』의 교감을 통해 잘못 서사된 부분, 『화엄경』의 원문을 빠뜨린 부분, 중복되어 서사된 글자, 잘못 쓴 글자 등등을 밝혔으며, ‘授’의 축천문

\* 본 연구는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2-A00091).

본 연구는 신라사경연구 프로젝트(책임자: 정재영) 팀원들의 정창원 화엄경 교감 작업 결과에 기대어 작성되었다

\*\* 東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大學院 招聘教授(sutra01@daum.net)

접수일: 2013년 9월 3일 최초심사일: 2013년 9월 7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28일

자 ‘穰’와 ‘臣’의 축천문자 ‘厖’이 이 문헌에 쓰였음을 밝힘과 동시에 축천문자의 이체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신수대장경의 주본 『화엄경』 권제72-80의 교감 내용 중에서 교감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권별로 지적하였다.

要語: 신라 사경, 절략본, 정창원 『화엄경』, 동대사 『화엄경』, 축천문자

### <ABSTRACT>

I have investigated an aspect of the abridgement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abridged Jubon *Hwaeomgyeong* vols. 72-80 collected in Shōsōin(hereafter, JH; Jeongchangwon *Hwaeomgyeong*) of Japan. The remaining ratio of JH is 44.2% and that of TH(Tongdaesa *Hwaeomgyeong*) is 29.4%. And the former's remaining ratio is, contrary to expectation,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But this is a matter of course because the editors of JH have put the bigger emphasis on the story of *Hwaeomgyeong* than the Buddhist doctrines in it.

I think, on the other hand, why the editors of JH have written “what are ten(何等爲十)?” and they have arranged only one or two among them is they always have beared the original text in mind. JH has not been, therefore, a perfect *Hwaeomgyeong* text in itself but they have always premised an original one.

Above these, I have revealed mistakenly written letters and phrases, dropped parts, and overlapping written letters, etc. through the proof-reading process and have found out two Chinese Characters of Empress Wū, 穰 and 厖, which we can not see them in other Korean Buddhist literatures. I have, at last, pointed out and corrected the faults among the footnotes in the Jubon *Hwaeomgyeong* vols. 72-80 of Taishō Tripiṭaka.

Key words: the Jeongchangwon *Hwaeomgyeong*(the Shōsōin Kegoṅkyou),  
abridgement, remaining ratio,  
the Tongdaesa *Hwaeomgyeong*(the Tōdaiji Kegoṅkyou),  
Chinese Characters of Empress Wū

## 1. 서 언

山本信吉(2006, 2012)는 (1)에 제시된 사실들을 근거로 日本 正倉院에 소장된 節略本 『花嚴經』 권제72-80(이하 정창원 『화엄경』으로 부른다)을 新羅 寫經으로 보았다.

- (1) 가. 一部合卷經이며 현저한 本文省略經(殘存率 약 46%)이다. 華嚴經의 一部合卷經은 일본에는 예가 없으나 신라에는 예가 있다.
- 나. 사용된 종이는 搗砧이 잘된 白楮紙인데 일본의 경우 楮紙를 사용한 예는 적고 白楮紙를 사용한 예는 없다.<sup>1)</sup>
- 다. ‘用籊 五十四張’의 ‘張’은 일본의 경우에는 잘 쓰이지 않고 ‘紙’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 라. 권수제가 ‘大方廣佛花嚴經入法界品第卅九之三卷七十二’로 권수제의 양식이 經名, 品名, 品次, 卷次로 구성된다.
- 마. 행수와 자수가 32행 17~18자, 無界이나 奈良 官立 寫經所의 경우 대부분 有界이다. 無界의 나라사경은 ① 和同 5년(712) 長屋王 願文이 있는 『大般若經』(和銅經)과 ② 神龜 5년(728) 長屋王 願文이 있는 『大般若經』(神龜經) 등 두 개뿐인데 이들은 모두 나라시대 초기의 사경이라는 특징이 있다.
- 바. 筆跡에 遊糸 필법이 있는데 이는 일본 사경의 경우 天平 12년(740) 光明王后發願一切經(五月一日經)에 있다. 이는 天平 7年(735) 遣唐使가 일본에 가져온 唐 開元一切經을 텍스트로 서사한 것이다.

그런데 山本信吉(2006, 2012)에 의해 신라 사경이라고 판정된 정창원 『화엄경』은 『화엄경』 본문을 모두 서사한 것이 아니라 『화엄경』의 일부분을 줄여서 쓴 소위 節略本이다. 정창원 『화엄경』은 절략본 화엄경으로 알려져 있는 東大寺 소장 周本 『華嚴經』 卷第12-20과 같은 종류이다. 이 글은 東大寺 소장 주본 『화엄경』 권제12-20과 함께 正倉院 소장 주본 『화엄경』 권제72-80의 특징인 節略 양상

1)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정창원 『화엄경』을 신라 사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된 것들 중에는 결정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는데 일본 사경들 중에는 白楮紙를 사용한 예가 없다고 한 점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고대의 일본 사경 중에서 陶枕이 잘된 白楮紙로 된 사경은 적어로 한반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창원 『화엄경』이 신라 사경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될 수 없을지라도 紙質의 측면에서도 정창원 『화엄경』을 신라 사경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을 살펴보고 이러한 절략 양상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正倉院 『花嚴經』과 東大寺 『花嚴經』이 節略本(내지 節本)이라는 점과 신라시대에 佛經의 章疏가 아닌 佛經 그 자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절략본 문헌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불교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문헌이 80권본 注本 『화엄경』이라는 점에서 신라 화엄학 연구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山本信吉(2006, 2012)에 기대어 正倉院 『花嚴經』의 形態 書誌에 대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正倉院 『花嚴經』의 構成에 대해 그리고 4장에서는 正倉院 『花嚴經』의 掲載率과 節略 樣相에 대해서 알아본다. 5장에서는 節略本으로서의 正倉院 『화엄경』의 그 밖의 특징에 대해서 살핀다.

## 2. 正倉院 『花嚴經』의 形態 書誌

正倉院 『花嚴經』은 일본 황실 소유의 고문헌 창고인 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다. 正倉院 소장품은 개인적인 접근이 일체 허락되지 않으므로 필자도 이 문헌을 實査하지 못하였다. 이 절에서는 正倉院 『화엄경』의 형태 서지 사항을 山本信吉(2006, 2012)에서 보고된 내용을 통해서 알아본다.

(2) 가. 正倉院 花嚴經은 正倉院 聖語藏의 경권 목록인 『正倉院聖語藏經卷目錄』의 ‘제5류 甲種 寫經 제10호’에 ‘大方廣佛華嚴經壹卷 卷七十二 乃至卷八十, 合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사경이며 1권으로 된 권축장이다. 표지는 茶地紙로 된 원래의 表紙로 본문 용지와 같은 도침한 楮紙이다. 좌단은 위 아래로 크게 손상을 입어 없어졌기 때문에 外題 部分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1915년(大正 5) 10월에 正倉院掛의 수리에 의해서 결손 부분이 보수되어 백지의 題籤에 ‘大方廣佛華嚴經 自卷七十二/至卷八十(쌍행)’이라는 外題가 묵서되어 있다. 좌단에는 八雙竹을 붙였고 平織의 新紐가 묶여 있다. 또한 본문 앞 지면은 표지의 이면인 채로 되어 있다.

다. 축은 양 끝 단에 검은 옷칠을 한 소위 ‘黑漆塗丹頂軸’이고, 축목은 한

2) 최근 海住(2013)이 동대사 『화엄경』의 절략 양상을 불교학적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 참고.

개로 되어 있다. 용지로부터 측수까지 나온 측 부분은 약 2.3cm로 아마도 원래의 측으로 생각된다.

- 라. 正倉院 『花嚴經』은 몇 개의 사경을 합하여 1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80화엄의 권제72로부터 권제80에 이르는 아홉 권을 한 권으로서 연속해서 서사한 것이라는 점임을 알 수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두의 권제72의 권수제가 표지와 본문 앞 지면의 사이에 1행 분의 여백을 두고 서사되어 있는 것, 둘째 권수제 아래에 본문 용지의 종이 수를 나타내는 ‘用緋五十四張’이라는 종이의 수에 대한 표기가 있는 것, 셋째 권두의 본문 용지의 첫째 장의 지면이 둘째 장 이후의 용지에 비해 약 1.9cm 정도 짧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표지를 붙일 때에 첫 1행 분량을 절단했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사경의 본문 용지 첫째 장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 넷째 권의 중간에 기록된 각 권의 본문의 접속이 동일 용지 내에서 행해지고 있고, 다섯째 각 권의 본문의 서사가 권두로부터 연속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 마. 본문의 용지는 도침된 흰색 저지이다. 용지 수는 권두에 기록된 ‘54紙’가 아닌 ‘55紙’로 종이 한 장의 길이는 평균 56.4cm에서 57.0cm이다.
- 바. 계선은 없다.
- 사. 본문 용지의 종이 수는 권수의 표제 아래에 본문과 동필로 ‘用緋五十張’이라는 목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실측한 종이 수는 55장으로 1장의 차이가 있다.
- 아. 한 장당 32행이며 1행당 글자수는 1행당 17자가 많다.

실제로 1718행으로 이루어진 정창원 『화엄경』의 전체 행의 행당 글자 수를 세어 보니 1행 19자를 기준으로 17자에서 23자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서사되어 있었다.<sup>3)</sup> 正倉院 『花嚴經』의 1행당 글자수는 상당히 자유롭다.

正倉院 『花嚴經』의 제목은 권수·권미 및 각 권의 중간에 있다. 구체적인 제목은 아래의 (3)과 같다.

- (3) 가. 卷首題: ‘大方廣佛花嚴經入法界品第卅九之十三 卷七十二 用緋五十四張’  
 나. 卷 中: ‘大方廣佛花嚴經入法界品第卅九之十四 卷七十三’(제240행)<sup>4)</sup>  
 ‘大方廣佛花嚴經入法界品第卅九之十五 卷七十四’(제446행)  
 ‘大方廣佛花嚴經入法界品第卅九之十六 卷七十五’(제586행)

3) 물론 계송의 경우에는 14자도 있으며 계송의 앞 부분에서 개행이 될 때는 글자수가 자유롭다.

4) 이 글에서는 거론되는 예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전체 행수를 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張次와 行數를 제시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正倉院 『花嚴經』을 사진으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張次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곳도 있어 張次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大方廣佛花嚴經入法界品第卅九之十七 七十六’(제876행)  
‘大方廣佛花嚴經入法界品第卅九之十八 卷七十七’(제1067행)  
‘大方廣佛花嚴經入法界品第三十九之十九 七十八’(제1289행)  
‘大方廣佛花嚴經入法界品第卅九之廿 卷七十九’(제1521행)  
‘大方廣佛花嚴經入法界品第卅九之廿一 卷八十’(제1656행)

다. 卷尾題: ‘大方廣佛花嚴經卷第八十’(제1719행)

권수의 권수제와 권 중간의 內題는 80화엄 권제72-80에 해당하는 각권의 권수 제만 있고 권미제는 없다. 따라서 권제72의 권수제와 권제80의 권미제는 전체 권자본의 권수제와 권미제를 겸한 모습이 되어 있다. 또한 제목 가운데 ‘華’字는 ‘花’字를 쓰고 있다. 그리고 권수제의 양식이 經名, 品名, 品次, 卷次의 순서로 되어 있는 점도 주목된다.

正倉院 『花嚴經』의 필적은 全文이 단정한 해서로 서사되어 있으나 전체를 한 사람이 쓴 것은 아니며 권제75의 후반부 제27장과 제28장 즉 제843행과 제844행에서는 종이도 다르고 필적도 다르다.<sup>5)</sup>

### 3. 正倉院 『花嚴經』의 構成

이 문헌의 節略 樣相을 살펴보기에 앞서 正倉院 『花嚴經』 즉 80화엄의 권제 72-80의 내용인 『화엄경』 입법계품의 구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주본 『화엄경』 권제72-80은 주본 『화엄경』 7처 9회 39품 중 제9회인 入法界品の 일부분이다. 입법계품은 제39품으로 『화엄경』의 마지막 품이며 권제60~80(총 21권)에 걸쳐서 수록되어 있다. 善財童子의 구법을 통해 前篇 즉 제1회부터 제8회의 내용이 재현되는

5) 본문은 “六十億百千那由他佛出興于世我皆親近”(제843행)과 “承事供養其最後佛名廣大解於彼佛所得淨”이다. 山本信吉(2006)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전후의 書風은 같지만 전반부가 筆線을 약간 길게 당기고 있는데 대해 후반부는 보다 단정한 筆致로 되어 있다. 용지도 종이 질은 같지만 종이 색이 다르고 전반부는 약간 白茶地이지만 후반부는 얼은 갈색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은 1행당 글자수도 다른 곳과 차이를 보인다. 정창원 『화엄경』의 일반적인 1행당 글자 수는 19자 내외로 18자~20자 정도이나 이 부분은 1행당 18자를 기준으로 17자로 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문수보살에게 발심한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역참하면서 보살도를 배우고 보현보살의 願과 行을 성취함으로써 범계에 들어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법계품의 내용을 간단히 보이면 아래의 (4)와 같다.

(4) 第39 入法界品の 내용

가. 根本法會

1. 序分

7. 普賢菩薩의 說三昧 <권61~>

10. 大用無盡

나. 枝末法會-五十三善知識

㉠ 十信位の 善知識

1. 文殊菩薩<권61, 62>

5. 彌伽長子 --- 第四 生貴住善知識<권63~>

8. 休捨優婆夷 --- 第七 不退住善知識<권64~>

10. 勝熱婆羅門 --- 第九 法王子住善知識<권65~>

㉡ 十行位善知識

16. 法寶 長者 -- 第五無癡難行善知識<권66~>

21. 徧行外道 -- 第十眞實行善知識<권67~>

㉢ 十廻向善知識

26. 婆須密多女 -- 第五無盡功德藏廻向善知識<권68~>

㉣ 十地位善知識

33. 普德淨光主夜神 -- 第二 離垢地 善知識<권69~>

35. 普救衆生妙德主夜神 -- 第四 焰慧地 善知識<권제70~>

36. 寂靜音海主夜神 -- 第五 難勝地 善知識<권제71~>

38. 開敷一切樹華主夜神 -- 第七 遠行地 善知識<권제72~>

39. 大願精進力主夜神 -- 第八 不動地 善知識<권제73~>

40. 嵐毘尼林神 -- 第九 善慧地 善知識<권제74~>

41. 釋女瞿波 -- 第十 法雲地 善知識<권제75~>

42. 摩耶夫人<권제76~>

51. 德生童子 有德童女<권제77~>

52. 彌勒菩薩<권제77, 78, 79>

53. 再見文殊菩薩<권80>

54. 普賢菩薩 -- 顯因廣大相

正倉院 『花嚴經』은 80화엄의 권제72에서 권제80에 해당되므로 善財童子가 參榜하는 53선지식 중 38번째인 開敷一切樹華主夜神을 찾아가는 이야기로부터, 제39 大願精進力主夜神(권제73), 제40 嵐毘尼林神(권제74), 제41 釋女 瞿波(권

제75), 제42 摩耶夫人(권제76), 제43 天主光女, 제44 童子 師徧友, 제45 知衆藝童子, 제46 賢勝優婆夷, 제47 堅固長子, 제48 妙月長子, 제49 無勝軍長子, 제50 寂靜婆羅門, 제51 德生 童자와 有德 童女가 권제77에 수록되어 있으며, 제52 彌勒菩薩이 권제77~79에 수록되어 있고, 마지막 선지식인 제53 文殊菩薩이 권제80에 수록되어 있다. 전체 입법계품에서 권제72-80이 차지하는 부분은 (4)에서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다.

#### 4. 正倉院 『花嚴經』의 節略 樣相

앞에서 언급한 대로 正倉院 『花嚴經』은 주본 『화엄경』 권제72에서 권제80까지를 전부 서사한 것이 아니라 발췌해서 서사한 소위 節略本이다. 아래의 <표 1>은 권제72에서 권제80까지를 대상으로 각권의 글자수와 正倉院 『花嚴經』에 서사된 글자수를 재조대장경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sup>6)</sup>

<표 1> 正倉院 『花嚴經』의 揭載率

卷次	再雕大藏經의 글자수	정창원 『화엄경』에 게재된 글자수	揭載率
卷72	6,677字	4,492字	67.0%
卷73	7,398字	3,626字	49.0%
卷74	5,096字	2,509字	49.2%
卷75	9,737字	5,334字	54.8%
卷76	8,649字	3,532字	40.8%
卷77	10,290字	4,030字	39.2%
卷78	9,525字	4,318字	45.3%
卷79	6,239字	2,497字	40.0%
卷80	7,609字	1,166字	15.3%
計	71,220字	31,504字	44.2%

6) 고려 재조대장경의 경우 권수제, 권미제, 역자명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문에 해당하는 글자를 계산하였고 정창원본의 경우 탈자, 오자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게재된 글자 수를 계산한 것이다.

正倉院 『花嚴經』의 掲載率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東大寺 『花嚴經』의 掲載率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金星周(2012)에 의하면 東大寺 『花嚴經』의 전체 掲載率은 29.4%이었는데 반해 正倉院 『花嚴經』의 掲載率은 44.2%에 이른다.<sup>7)</sup>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正倉院 『花嚴經』 자체의 節略 樣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正倉院 『花嚴經』 자체의 節略 樣相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그 하나는 각 권의 節略 양상을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권 내부, 예를 들어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節略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전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正倉院 『花嚴經』이 東大寺 『花嚴經』에 비해 掲載率이 높은 것은 이미 언급했다. 그러나 正倉院 『花嚴經』 안에서도 높은 掲載率을 가지는 것과 낮은 掲載率을 가지는 권차이 있다. 가장 높은 게재율을 가지는 것은 67.0%의 게재율을 가지는 권제72이며, 가장 낮은 게재율을 가지는 것은 15.3%의 게재율을 가지는 권제80이다. 正倉院 『花嚴經』의 掲載率은 권제80을 제외하면 거의 40%가 넘는 높은 게재율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正倉院 『花嚴經』 중 가장 높은 게재율을 보이는 권제72와 가장 낮은 게재율을 보이는 권제80을 대상으로 節略 樣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권제72는 입법계품의 내용을 根本法會와 枝末法會로 나눌 때 지말법회 중 제38 開敷一切樹華主夜神을 선재동자가 참방할 때의 이야기이며 교리적인 전개로 보면 十地位 중 제7 遠行地에 배대된다. 그 내용은 선재동자가 開敷一切樹華主夜神에게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온갖 지혜를 얻는지를 묻고, 開敷一切樹華主夜神으로부터 大喜光明解脫門을 얻는다. 그러나 開敷一切樹華主夜神은 나는 다만 이 보살의 광대한 기쁜 광명을 내는 해탈문은 알지만, 저 보살마하살들이 모든 보살의 해탈문 바다에 들어가는 일은 모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39 大願精進力主夜神을 찾아가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여 아홉

7) 山本信吉(2006)은 『大正新修大藏經』의 본문에 의해서 정창원 『화엄경』의 본문을 1행 17자로 환산해서 생략되어 있는 본문을 행수로 대비시켜 게재율을 46%로 계산하였다.

다라삼막삼보리에 나아가게 하며, 어떻게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어떻게 모든 여래를 받들어 섬기며, 어떻게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닦는지에 대해서 물으라고 한다.

권제72의 科目과 정창원 『화엄경』에서의 절략 양상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무비 2006).<sup>8)</sup>

(5) 권제72의 科目

三十八, 開敷一切樹華主夜神 -- 第七遠行地善知識

1, 依教趣求와 見敬諮問

1, 始成正覺

2, 授己法界

(1) 安樂衆生行

(2) 利益衆生行

(3) 辨明業用

가, 總顯業用(부분 생략)

나, 廣顯業用

ㄱ, 發心(부분 생략)

ㄴ, 起行(부분 생략)

(4) 得法根本의 甚深

가, 歎深難知(부분 생략)

나, 偈頌重明(부분 생략)

다, 承力正酬

ㄱ, 發心時處佛興(부분 생략)

ㄴ, 本生時處(부분 생략)

ㄷ, 發心勝緣(부분 생략)

ㄹ, 正明起行(부분 생략)

ㅁ, 正顯發心本事(부분 생략)

ㅂ, 寶光明女の 偈讚王德

ㅅ, 偈讚大王本生

ㅇ, 大王의 讚嘆

ㅈ, 施行攝持

ㅊ, 結會古今(부분 생략)

ㅋ, 重頌(부분 생략)

3, 謙已推勝(부분 생략)

4, 指示後友

8) 각 과목의 옆에 ‘부분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당 과목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생략된 것을 표시한 것이다.

권제72의 절략 양상을 살펴보면 각 과목이 일괄적으로 생략된 경우는 거의 없고 생략된 경우라도 각 과목의 중요한 내용은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생략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권제72의 게재율이 높은 것은 단락 중에서만 글자도 생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제 권제80의 내용과 과목을 살펴보자. 권제80은 枝末法會 중 문수보살을 다시 보는 것과 보현보살을 찾는 것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선재동자는 미륵보살이 가르친 대로 나아가 110여 성을 지나서 普門國 蘇摩那城에 이르러 문수보살을 뵈기를 바라자 문수보살은 멀리서 오른손을 펴서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信根이 없었다면 周遍知, 種種知, 盡源知, 解了, 超入, 解脫, 證知의 획득이 모두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말한다. 문수보살은 선재동자에게 그지없는 지혜를 얻게 하고 보현의 도량에 들어가게 하면서도 자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선재동자는 보현의 해탈 경계를 관찰하고 보현보살을 친근하려고 금강장 보리도량 비로자나여래 사자좌 앞에서 여래 십력에 나아가려는 마음을 일으킨다. 드디어 선재동자는 대중에게 둘러싸여 연화 사자좌에 앉아 있는 보현보살의 자유자재하고 신통한 경계를 보고 환희 용약하였다. 선재동자는 열 가지 지혜바라미를 얻은 후 보현보살이 오른손을 펴서 정수리를 만지자 곧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수 삼매문을 얻는다. 선재동자는 자기의 몸이 보현보살의 몸 속에 있는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을 보았으나 선재동자가 세계의 티끌 수 선지식을 친근하여 얻은 이러한 뿌리의 지혜 광명은 보현보살이 얻은 선근에 비하면 그 어떠한 비유라도 미치지 못하였다. 선재동자는 보현 행원의 바다를 믿어서 세계, 행, 바른 깨달음, 말씀, 힘과 두려움, 부처님의 머무심, 대자대비, 부사의한 해탈이 평등함을 얻는다. 이어서 보현보살의 계송이 이어진다.

권제80의 과목과 절략 양상은 아래와 같다.

(6) 권제80의 科目

五十三, 再見文殊菩薩

1, 依教趣求(부분 생략)

2, 見聞證入

(1) 摩頂攝受(완전 생략)

- (2) 教示法門(완전 생략)
- (3) 結益歸本(완전 생략)
- 3, 轉遇勝緣(부분 생략)
- 五十四, 普賢菩薩 -- 顯因廣大相
- 1, 依教趣求(완전 생략)
- 2, 聞見前相
  - (1) 聽聞前相(완전 생략)
  - (2) 觀見前相
    - 가, 仰德修觀(완전 생략)
    - 나, 觀見希奇
      - ㄱ, 十種瑞相(부분 생략)
      - ㄴ, 十種光明相(완전 생략)
- 3, 見聞證入
  - (1) 結前起後(부분 생략)
  - (2) 起觀增修(부분 생략)
  - (3) 見身得益
    - 가, 勝德身相
    - 나, 毛孔出生(부분 생략)
    - 다, 體內包含(부분 생략)
    - 라, 結通周徧(완전 생략)
    - 마, 十種智波羅密的 得益(부분 생략)
  - (4) 摩頂得益(부분 생략)
  - (5) 顯因深廣
    - 가, 問答審見
    - 나, 明因深遠
    - 다, 結因成果(부분 생략)
  - (6) 觀用無涯
    - 가, 舉益勸觀
    - 나, 觀身奇特(완전 생략)
    - 다, 校量顯勝(부분 생략)
  - (7) 位滿齊佛(완전 생략)
- 4, 如來의 殊勝한 功德
  - (1) 標德誠聽(완전 생략)
  - (2) 大衆渴仰(완전 생략)
  - (3) 說德의 分齊(완전 생략)
  - (4) 所知의 無障礙功德(완전 생략)
  - (5) 眞如의 淸淨功德(완전 생략)
  - (6) 無功用佛事의 不休息功德(완전 생략)
  - (7) 主와 伴의 莊嚴國土功德(완전 생략)
  - (8) 微細含容轉法功德(완전 생략)

- (9) 總攝多門(완전 생략)
- (10) 一切障礙對治功德(완전 생략)
- (11) 一切外道降伏功德(완전 생략)
- (12) 八相現世의 無礙功德(완전 생략)
- (13) 住在天宮無礙功德(완전 생략)
- (14) 隨世攝化無礙功德(완전 생략)
- (15) 無礙智의 能徧隨機(완전 생략)
- (16) 正法을 安立한 功德(완전 생략)
  - 가, 三乘法輪과 顯業用(완전 생략)
  - 나, 六度道品과 對治法(완전 생략)
  - 다, 一音說法隨類無礙(완전 생략)
  - 라, 語業의 徧應無礙(완전 생략)
- (17) 授記의 功德(완전 생략)
- (18) 受用身과 變化身의 功德(완전 생략)
- (19) 斷除一切疑網功德(완전 생략)
- (20) 種種行의 功德(완전 생략)
- (21) 當來生의 妙智功德(완전 생략)
- (22) 殊勝한 理解의 示現功德(완전 생략)
- (23) 調伏有情加行功德(완전 생략)
- (24) 淸淨法身の 功德(완전 생략)
- (25) 殊勝한 理解의 示現佛土功德(완전 생략)
- (26) 三種佛身の 無分限功德(완전 생략)
- (27) 眞如와 實際와 涅槃의 功德(완전 생략)
- (28) 無盡功德의 總結(완전 생략)

권제72와 권제80의 절략 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권제72가 부분 생략이 많은 데 비해 권제80은 완전히 생략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권제80의 과목 중 ‘4, 如來의 殊勝한 功德’ 부분은 보현보살의 계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계송은 한 글자도 예외없이 전체가 생략되었다. 즉 권제80의 게재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완전히 생략된 부분이 많은데다가 長行의 내용을 거듭 노래한 重頌 부분이 생략되는 경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正倉院 『花嚴經』의 본문 서사에 대한 양상을 고찰해 보자. 山本信吉(2006)은 “본문 중에는 구두점 등의 기입은 없고, 독경된 형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본문에는 필사 후 교정을 행한 흔적이 있다. 먼저 빠뜨린 글자를 보충한 부분을 제시하면 제588행의 ‘集’과 ‘普’ 사이의 ‘會’, 제961행의 ‘世’와 ‘海’

사이의 ‘界’, 제1065행의 ‘菩薩’과 ‘道’ 사이의 ‘行問菩薩’을 각각 글자의 우측 사이에 약간 작은 글씨로 써 놓았다. 잘못 서사하여 삭제한 부분도 있는데 제525행과 제527행에 걸쳐서 ‘神變又善男子摩’의 글자 우측마다 삭제부호 ‘·’를 표시하였다.

정창원 『화엄경』에는 중복되어 서사된 글자도 있다. 제341행의 ‘示’와 제1541행의 ‘之’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중복된 부분이 앞 행의 끝 글자와 뒤 행의 첫 글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마도 필사할 때 앞 행에서 쓴 글자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뒤 행을 쓰면서 중복해서 쓴 것으로 짐작된다.

재조대장경 주본 『화엄경』을 기준으로 하면 제465행의 ‘受’는 ‘愛’로 되어야 하고, 제833행의 ‘世界’와 ‘中’ 사이에는 ‘海’, 제1460행의 ‘皆’와 ‘勇’ 사이에는 ‘增’, 제1470행의 ‘鼠’와 ‘卽’ 사이에는 ‘鼠’, 제1569행의 ‘雨’와 ‘造’ 사이에는 ‘法雨’, 제1673행의 ‘界’와 ‘處’ 사이에는 ‘無色界’가 잘못 서사되어 있다. 즉 이들은 誤字인 것이다.

글자 자체를 잘못 쓴 경우도 있는데 제1169행의 ‘父’는 ‘文’, 제1373행의 ‘大’는 ‘火’, 제1431행의 ‘除’는 ‘降’, 제1672행의 ‘花’는 ‘苑’, 제1691행의 ‘頭而爲’는 ‘才物’<sup>9)</sup> 등이다.<sup>10)</sup> 제784행의 경우 본문을 생략한 부분이 의도적인 것인지 실수로서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제 山本信吉(2006)이 正倉院 『花嚴經』의 節略 현상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을 아래의 (7)로 정리하고 이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7) 가. 경의 본문의 생략은 편의적이며, 入法界品에 기록된 善財童子의 행동을 검토해 장황한 부분을 생략하는 등의 방침은 엿보이지 않는다.
- 나. 각 권의 偈頌 부분은 원칙적으로 후반부를 일률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다만 권제75의 제3번째의 偈頌(태자와 童女具足妙德, 母善現의 문답에 대한 내용임)과 106행의 장문의 偈頌은 생략이 없다.
- 다. 생략은 후반 부분에 많다. 권두의 권제72는 본문의 게재율이 69%인데 대해 권제79는 43%, 권제80은 14%로 권말에 가까워짐에 따라 생략이

---

9) 세로로 된 底本の 글자를 잘못 파악하여 誤字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10) ‘熟’을 ‘就’로 적은 곳이 몇 군데(제1637행과 제1704행 등) 보이는데 이것도 誤字일 가능성이 있다.

크게 되었다.

- 라. 권제80은 권말이 본문의 도중에 끝나 있다. 게다가, 내용은 善財童子가 普賢菩薩과 만나 普賢菩薩이 얻은 善根이 광대함을 알고 그 공덕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중요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도중에 갑자기 끝내고 있다. 즉 “(前略) 比見普賢菩薩所得善根. 百分不及一. 千分不及一. 百千分不及一. 百千億分. 乃至算數譬論. 亦不能及是”의 ‘亦不能及’이라는 문장의 도중에 서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1행의 공백을 두고 권제80의 卷尾題를 달고 있다. 이 부분은 보현보살의 이익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경문이지만, 그곳을 생략하고, 게다가 경문의 도중에 부자연스럽게 서사를 그만두는 것은, 경본문의 생략이 마땅하다는 승려의 지시하에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고, 한정된 종이 수 안에서 권제72로부터 제80까지를 1권으로서 서사하려고 하는 어떠한 제약 아래에서 자의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7가) 經의 본문의 생략은 편의적이며 入法界品에 기록된 善財童子의 행동을 검토해 장황한 부분을 생략하는 등의 방침은 엇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창원 『화엄경』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정창원 『화엄경』의 본문 생략은 편의적이지 않으며 의도적인 계획하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주요한 근거는 본문이 생략된 부분은 이야기의 전개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며<sup>11)</sup> 반대로 서사된 부분은 이야기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sup>12)</sup>

(7나) 각 권의 偈頌 부분은 원칙적으로 후반부를 일률적으로 생략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偈頌의 후반부가 주로 생략되는 것은 내용 전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화엄경』의 계송은 주로 산문으로 된 長行을 거듭 노래하는 重頌인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은 장항과 자연히 중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송의 경우 생략하

11) 내용 전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교학적인 부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 전개 상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12) 정창원 『화엄경』과 같은 세트인 동대사 『화엄경』의 경우 비교적 짧은 品인 第13 昇須彌山頂品은 전체 645字 중 589字가 서사되어 91.3%의 계재율을 보이며, 第16 梵行品의 경우 전체 917字 중 783字가 서사되어 85.3%의 계재율을 보인다. 또한 第14 淨行品의 偈頌의 경우 전체 141수의 偈頌 중 오직 1수만 생략되어 있으며, 생략된 1수조차도 실수에 의해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대사 『화엄경』을 절략 양상을 불교학적으로 검토한 해주(2013)에서도 절략이 『화엄경』의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도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여도 내용 전개에 무리가 없다. 또한 권제72의 ‘往昔此城邑’으로 시작하여 ‘一切悉安樂’으로 끝나는 계송은 무려 208句의 계송이 한 句 한 字의 생략 없이 실려 있고, 권제75의 ‘我身最端正’으로 시작되어 ‘而作轉輪位’로 끝나는 계송과 ‘汝身極清淨’으로 시작되어 ‘能無疲倦不’로 시작되는 계송, 그리고 ‘太子汝應聽’으로 시작되어 ‘宜應事太子’로 끝나는 계송은 서로 연속되어 있는 계송으로 한 글자의 생략도 없이 모두 실려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창원 『화엄경』의 편집자가 偈頌 부분의 후반부를 일률적으로 생략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획하에 절략하였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7다) 본문의 생략이 후반 부분에 많으며 권두의 권제72는 본문의 게재율이 69%인데 대해 권제79는 43%, 권제80은 14%로 권말에 가까워짐에 따라 생략이 크게 된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sup>13)</sup> 먼저 80화엄 전체를 볼 때 권제80은 『화엄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특히 모두 생략된 마지막의 계송 부분은 전체 『화엄경』의 내용을 요약한 長行 부분을 또다시 노래한 重頌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생략하여도 내용 전개에 무리가 없다.

(7라) 권제80은 권말이 본문의 도중에 급격하게 끝나 있다고 본 부분인 ‘亦不能及’은 문장이 도중에 급격하게 잘린 것이 아니라 끝나야 할 부분에 정확하게 끝난 것이다. 山本信吉(2006)은 ‘亦不能及’은 ‘亦不能及是’로 끝나야 하는 것으로 보았고, 실제로 『大正新修大藏經』은 ‘亦不能及是’에 표점이 찍혀 있지만 이것은 『신수대장경』의 표점이 잘못 찍힌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출판된 『國譯一切經』이나吞虛스님의 현토역주 『화엄경』, 無比스님의 현토역주 『화엄경』 그리고 음독구결이 기입되어 있는 月精寺 소장본 재조대장경의 『주본화엄경』의 해당 부분은 모두 ‘亦不能及’에서 구두가 떼어져 있다.<sup>14)</sup>

13) 여기의 절략률은 山本信吉(2006, 2012)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보다 정확한 절략률은 <표 1>을 참조할 것.

14) 이 점에 관해서는 金星周(2012)에서 상세히 논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 5. 정창원 『화엄경』의 특징

### 5.1 정창원 『화엄경』의 절략 양상

#### 5.1.1 절략된 부분의 특징

정창원 『화엄경』의 절략된 부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나열된 것 중 일부만 제시한다.

(8) 가. 善男子！入此解脫，能知如來普攝衆生巧方便智。云何普攝？善男子！一切衆生所受諸樂，皆是如來威德力故，順如來教故，行如來語故，（學如來行故，得如來所護力故，修如來所印道故，種如來所行善故，依如來所說法故，如來智慧日光之所照故，如來性淨業力之所攝故。）云何知然？善男子！我入此出生廣大喜光明解脫，憶念毘盧遮那如來、應、正等覺往昔所修菩薩行海，悉皆明見。

나. 선남자여, 모든 중생이 받는 여러 가지 낙은 모두 여래의 위덕의 힘이니, 여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연고며, 여래의 말씀을 실행하는 연고며, (여래의 행을 배우는 연고며, 여래의 두호하는 힘을 얻은 연고며, 여래의 인가하는 도를 닦는 연고며, 여래의 행하던 착한 일을 심는 연고며, 여래의 말씀한 법을 의지하는 연고며, 여래의 지혜의 햇빛으로 비추는 연고며, 여래의 성품이 깨끗한 업의 힘으로 거두어 주시는 연고니라.)

(9) 가. 爾時，善財童子往大願精進力救護一切衆生夜神所，見彼夜神在大衆中，坐普現一切宮殿摩尼王藏師子之座，普現法界國土摩尼寶網彌覆其上，①現日、月、星宿影像身，（②現隨衆生心普令得見身，③現等一切衆生形相身，④現無邊廣大色相海身，⑤現普現一切威儀身，⑥現普於十方示現身，⑦現普調一切衆生身，⑧現廣運速疾神通身，⑨現利益衆生不絕身，⑩現常遊虛空利益身，⑪現一切佛所頂禮身，⑫現修習一切善根身，⑬現受持佛法不忘身，⑭現成滿菩薩大願身，⑮現光明充滿十方身，⑯現法燈法明了身，⑰現究竟無患無熱身，⑱現不可沮壞堅固身，⑳現無所住佛力身，㉑現無分別離染身，㉒現本清淨法性身。）

나. 그 때 선재동자는 큰 서원 정진하는 힘으로 모든 중생 구호하는 밤 말은 신[一切衆生夜神]에게 나아갔다. 그 밤 말은 신이 대중들 가운데서 모든 궁전 나타내는 마니왕장 사자좌에 앉았는데, 법계의 국토를 두루 나투는 마니보 그물이 그 위에 덮였다. 해와 달과 별의 그림자인 몸을

(니투고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볼 수 있는 몸을 니투고, 모든 중생의 형상과 평등한 몸을 니투고, 크지없이 광대한 빛깔 바다의 몸을 니투고, 온갖 위의를 나타내는 몸을 니투고, 시방에 두루 나타내는 몸을 니투고, 모든 중생을 두루 조복하는 몸을 니투고, 빠른 신통을 널리 부라는 몸을 니투고, 중생들을 이익하여 끊어지 않는 몸을 니투고, 항상 허공에 다니면서 이익하게 하는 몸을 니투고, 여러 투고, 부처님 법을 받아 저니고 잊지 않는 몸을 니투고, 보살의 큰 서원을 이룩하는 몸을 니투고, 광명이 시방에 가득한 몸을 니투고, 법의 등불로 세상의 어둠을 두루 없애는 몸을 니투고, 법이 눈어래[幻]와 같음을 이르는 깨닫힌 지혜의 몸을 니투고, 다끝의 어둠을 멀리 여의는 법의 성품 몸을 니투고, 넓은 지혜로 법을 비추어 분명히 아는 몸을 니투고, 끝까지 병환이 없고 열아 없는 몸을 니투고, 깨뜨릴 수 없이 견고한 몸을 니투고, 머무는 데 없는 부처님 힘의 몸을 니투고, 분별 없이 때를 여의는 몸을 니투고, 본래 청정한 법의 성품 몸을 ) 니투었다.

『화엄경』의 전체 분량을 줄이면서 『화엄경』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열되는 어구를 조금만 남겨두고 절략하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1)은 一切 衆生이 받는 諸樂에 대한 까닭을 나열하는 부분으로 까닭으로 나오는 구는 『화엄경』 본문에서 ① 如來威德力故, ② 順如來教故, ③ 行如來語故, ④ 學如來行故, ⑤ 得如來所護力故, ⑥ 修如來所印道故, ⑦ 種如來所行善故, ⑧ 依如來所說法故, ⑨ 如來智慧日光之所照故, ⑩ 如來性淨業力之所攝故 등 10개의 구가 제시되었으나 정창원 『화엄경』은 이 중 ①~③만 제시되었고 나머지 7개는 절략되었다. (2)는 선재동자가 大願精進力救護一切衆生夜神의 처소에서 이 夜神이 ① 現日、月、星宿影像身에서 ② 現本清淨法性身까지 총 24가지의 몸을 나투는 것을 나열하였으나 정창원 『화엄경』에는 ① 現日、月、星宿影像身 부분만 신고 나머지는 절략하였다. 이와 같이 나열된 부분을 절략하는 것은 전체 분량을 줄일 때 전체 대의를 건드리지 않고 분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요긴한 방법이며 정창원 『화엄경』도 이러한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정창원 『화엄경』은 절략된 결과를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각각의 에피소드가 전개될 경우 앞부분과 뒷부분은 거의 대부분 절략되지 않고 게재되고 있다. 이것은 『화엄경』 전체의 구조를 깨뜨리지 않는 필수적인 방법이다. 둘째, 정창원 『화엄경』은 비유를 절략하지 않고 게재하는 부분이 많다. 일반적으로 비유는

경의 내용을 다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사하는 방법이므로 경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거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정창원 『화엄경』이 비유를 절략하지 않고 게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문헌의 특징이 『화엄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요약했다고 보기보다는 『화엄경』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평범한 사람이 『화엄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창원 『화엄경』은 절략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화엄경』에는 어떤 원리나 사실에 대해 10가지를 나열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화엄경』 원문에서는 ‘何等爲十’이란 구절 다음에 그 열 가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나온다.

정창원 『화엄경』 권제73의 제246행에는 ‘何等爲十’이 나오는데 이것은 선재동자가 선지식에게 10가지 마음을 낸 부분이다. 아래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화엄경』 본문에서 제시된 10가지 중 정창원 『화엄경』에는 앞의 두 가지만 제시되어 있다.

- (10) 時，善財童子見如是等佛刹微塵數差別身，一心頂禮，舉體投地，良久乃起，合掌瞻仰，於善知識生十種心。何等爲十？所謂：『①於善知識生同己心，令我精勤辦一切智助道法故；②於善知識生清淨自業果心，親近供養生善根故；③於善知識生莊嚴菩薩行心，令我速能莊嚴一切菩薩行故；④於善知識生成就一切佛法心，誘誨於我令修道故；⑤於善知識生能生心，能生於我無上法故；⑥於善知識生出離心，令我修行普賢菩薩所有行願而出離故；⑦於善知識生具一切福智海心，令我積集諸白法故；⑧於善知識生增長心，令我增長一切智故；⑨於善知識生具一切善根心，令我志願得圓滿故；⑩於善知識生能成辦大利益心，令我自在安住一切菩薩法故，成一切智道故，得一切佛法故。』是爲十。

또한 정창원 『화엄경』 권제76의 제899행에는 보살이 선지식을 친근하게 되는 열 가지 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아래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10가지의 법 중에서 앞의 두 가지만 제시되어 있다.

- (11) 『善男子！菩薩成就十法，則得親近諸善知識。何等爲十？所謂：①其心清淨離諸詭誑；②大悲平等普攝衆生，③知諸衆生無有眞實；④趣一切智，心不退轉；⑤以信解力普入一切諸佛道場；⑥得淨慧眼了諸法性；⑦大慈平等普覆衆生；⑧以智光明廓諸妄境；⑨以甘露雨滌生死熱；⑩以廣大眼徹鑒諸法；心常隨順諸善知識。是爲十。』

그렇다면 ‘何等爲十’이 나오면서 10가지가 모두 제시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절략본인 정창원 『화엄경』을 완성된 텍스트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무엇이 열인가?’라는 물음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를 모두 제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정창원 『화엄경』의 편집자들은 정창원 『화엄경』이 『80화엄경』을 전제로 하는 다이제스트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둘째, 절략되면서 문맥의 미세한 의미가 달라지는 것

(12) 가. (善男子!我唯知此菩薩出生廣大喜光明解脫門。如諸菩薩摩訶薩，親近供養一切諸佛，入一切智大願海，滿一切佛諸願海；得勇猛智，於一菩薩地，普入一切菩薩地海；得清淨願，於一菩薩行，普入一切菩薩行海；得自在力，於一菩薩解脫門，普入一切菩薩解脫門海。)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나.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광대한 기쁜 광명을 내는 해탈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마하살들의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며 온갖 지혜의 큰 서원 바다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의 서원 바다를 만족하며, 용맹한 지혜를 얻어 한 보살의 지위에서 모든 보살 지위의 바다에 들어가며, 청정한 서원을 얻어 한 보살의 행에서 모든 보살의 수행 바다에 들어가며 자유자재한 힘을 얻어 한 보살의 해탈문에서 모든 보살의 해탈문 바다에 들어가는 일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정창원 『화엄경』의 절략된 부분을 따라 『화엄경』을 해석하다 보면 절략된 부분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어색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문은 ‘나는 이 보살의 광대하고 기쁜 광명을 내는 해탈문 등은 알지만은 저 보살마하살들이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며 온갖 지혜의 큰 서원 바다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의 서원 바다를 만족하는 등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어떻게 말하겠는가’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앞부분은 모두 생략된 채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은 어떻게 말하겠는가?’만 게재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문맥이 매끄럽게 전개되지 않는다.

(13) 가. 爾時, 善財童子一心欲詣摩耶夫人所, 卽時獲得觀佛境界智, 作如是念: 『是善知識, 遠離世間, 住無所住, 超過六處, 離一切著, 知無礙道, 具淨法身, 以如幻業而現化身, 以如幻智而觀世間, 以如幻願而持佛身, 隨意生身, 無生滅身, 無來去身, 非虛實身, 不變壞身, 無起盡身, 所有諸相皆一相身, 離三邊身, 無依處身, 無窮盡身, 離諸分別如影現身, 知如夢身, 子如像身, 如淨日身, 普於十方而化現身, 住於二世無變異身, 非身心身, 猶如虛空, 所行無礙, 超諸世眼, 唯是普賢淨目所見. 如是之人, 我今云何而得親近承事供養, 與其同住, 觀其狀貌, 聽其音聲, 思其語言, 受其教誨?』

나. 그 때 선재동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야부인 계신 데 나아가서 부처님의 경계를 관찰하는 지혜를 얻으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선지식은 세상을 멀리 여의고 머물 데 없는 데 머물며, 여섯 군데[處]를 초월하여 모든 애착을 떠났으며, 걸림없는 도를 알고 깨끗한 법의 몸을 갖추어 눈어리 같은 업으로 나툰 몸을 나타내며, 눈어리 같은 지혜로 세상을 관찰하며, 눈어리 같은 소원으로 부처님 몸을 지나나니, 뜻대로 나는 몸·나고 없어짐이 없는 몸·오고 감이 없는 몸·헛되고 진실함이 없는 몸·변하여 무너지지 않는 몸·(일어나고 다함아 없는 몸·모든 모습이 다한 모습인 몸·두 갖을 떠난 몸·의지할 데 없는 몸·끝나지 않는 몸·분별을 떠나서 크립치처럼 나타나는 몸·꿈 같은 줄어는 몸·영상 같음을 이는 몸·맑은 해와 같은 몸·시방에 널려 나타내는 몸·삼세에 변함이 없는 몸·몸도 마음도 아닌 몸이니, 마치 허공과 같아서 간 데마다 걸림이 없고 세간의 눈을 뛰어났으며, 보현의 깨끗한 눈어리야 보리라. 어린 이를 내가 어떻게 친근하여 섬기고 공양하며, 크와 함께 있으면서 그 형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생각하코 》 그 가르침을 받으리요.’

위 예문에서 선재동자의 생각에는 이 선지식은 여러 가지 견고한 몸이 나열되고 있는데 나열된 몸이 절략되고 마지막 ‘受其教誨’ 즉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는가’로 끝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절략된 정창원 『화엄경』으로만 해석하면 문맥이 이상하게 된 부분이다.

### 5.1.2 실수로 의심할 만한 곳

정창원 『화엄경』에서 절략된 부분 중에는 실수로 절략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제600행의 절략된 부분: 不久當得一切菩薩禪定解脫諸三昧樂

- (14) 가. 我觀仁者勇猛精進而無有比不久當得普見三世一切諸佛聽受其法 / 不久當入諸佛如來甚深解脫何以故
- 나. 我觀仁者勇猛精進而無有比, 不久當得普見三世一切諸佛聽受其法, 不久當得一切菩薩禪定解脫諸三昧樂, 不久當入諸佛如來甚深解脫
- 다. 또 보니 당신은 용맹하게 정진함이 비길 데 없으니, 오래지 않아서 삼세의 부처님들을 보고 그의 법을 들을 것이며, 오래지 않아서 모든 보살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낙을 얻을 것이며, 오래지 않아서 여러 부처님 여래의 깊은 해탈에 들어갈 것이외다.
- 라. 또 보니 당신은 용맹하게 정진함이 비길 데 없으니, 오래지 않아서 삼세의 부처님들을 보고 그의 법을 들을 것이어서 오래지 않아서 여러 부처님 여래의 깊은 해탈에 들어갈 것이외다.

(14나)의 재조대장경 부분을 보면 정창원본에는 不久當得一切菩薩禪定解脫諸三昧樂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은 절략된 부분일 가능성도 있으나 뒤에 이어지는 구절인 不久當入諸佛如來甚深解脫도 역시 不久當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정창원본의 서사자가 이 구절을 빠뜨리고 잘못 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구절이 빠진 정창원본은 (14다)에 제시된 한글대장경을 참조하면 (14라)와 같이 해석된다.

둘째, 제1510행의 善力

- (15) 가. 재조대장경: 善男子 如金剛杵 諸大力人 皆不能持 唯除有大那羅延力 菩提之心 亦復如是 一切二乘 皆不能持 唯除菩薩廣大因緣堅固 善力 善男子
- 나. 정창원 본문:  
1508행 {善男子如金剛杵諸大力人皆不能持唯除  
1509행 有大那羅延力菩提之心亦復如是-%切二乘皆  
1510행 不能持唯除%菩%薩廣大因緣堅固(善力)}
- 다. 한글대장경: 선남자여, 마치 금강저를 기운 선 사람들이 능히 들지 못하거나 큰 나라의 힘을 가진 이는 제외하듯이, 보리심도 그와 같아서 모든 이성은 유지하지 못할거나 보살의 광대한 인연과 견고하고 착한 힘은 제외하느니라.

정창원본은 唯除菩薩廣大因緣堅固善力の 善力이 없다. 이는 절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음에 善男子로 시작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善男子로 시작하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애초에 절략할 계획이 없던 부분을 실수로 게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글대장경의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善力이 절략된다 할지라도 해석은 어색하지 않다. 즉 원래의 해석은 ‘보살의 광대한 인연과 견고하고 착한 힘은’인데 ‘善力’이 절략된 정창원본의 해석은 ‘보살의 광대한 인연과 견고함은’이 된다.

## 5.2 정창원 『화엄경』의 축천문자<sup>15)</sup>

축천문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략 17자의 축천문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7자의 축천문자를 제시하면 아래의 (16)과 같다.

(16) 則天文字: 國君年星聖授臣月人日載正照證地天初

80화엄의 한역에는 축천무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80화엄 권제1에 붙어 있는 축천무후의 서문만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다. 80화엄이 축천무후 시대에 한역이 된 만큼 축천문자를 가지고 있는 『화엄경』 사경은 서사 시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교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당 사경인 『80화엄경』 권제8은 7세기 초기에 서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추정의 배경에는 축천문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그 근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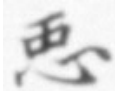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유일한 신라 사경인 국보 196호 『신라백지목서대방광불 화엄경』 사경도 축천문자를 가지고 있다. 이 사경은 권제1-10과 권제44-50이 남아 있는데 현전하는 경권에서 찾을 수 있는 축천문자는 國君年星聖授臣月人日載正照證地天初의 17자 중 授臣載照를 제외한 나머지 13자이다. 정창원 『화엄경』에도 축천문자가 있다. 그리고 정창원 『화엄경』에 쓰인 축천

15) 정창원 『화엄경』의 이체자 및 자형 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성주·박대범(예정)을 참조할 것. 여기서는 축천문자로 보이는 臣과 授에 대해서만 이미지를 제시한다.

문자는 국보 196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에 쓰이지 않은 4자의 측천문자 중 ‘授, 臣’이다. 아래에서 이들의 자형을 제시하고 이체자를 검토한다.

### 5.2.1 臣의 측천문자 𡗗

臣은 『80화엄경』 권제72-80 중에서 모두 20번이 나오며, 정창원 『화엄경』에는 모두 12번이 나온다. 그 중 권제72의 제65행에 나오는 臣은 측천문자로 씌어 있다. 자형은 아래와 같다.

臣	 (65행, 권제72)
	 唐 薛曜 夏日遊石淙詩

### 5.2.2 授의 측천문자 𡗗

授는 『80화엄경』의 권제72-80에서 모두 14번이 나오는데 정창원 『화엄경』에서는 8번이 나온다. 그 중 권제74의 제579행과 권제75의 제791행의 授는 측천문자로 씌어 있다. 그런데 제579행의 授의 측천문자와 제791행의 授의 측천문자는 자형이 다르다. 아래에는 전형적인 授의 측천문자를 제시하였는데 제791행의 자형이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79행의 자형은 원래의 禾변이 아닌 扌변으로 되어 있고 방의 모습도 几의 안에 王이 들어간 자형이 아니라 几 안에 扌자형이 들어가서 마치 用자와 비슷한 자형이 씌어 있다. 정창원 『화엄경』과 같은 사경에서 禾변이 扌으로 쓰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헌에서는 주로 禾과 扌이 통용되고 있으나 禾도 扌와 통용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방의 모습은

조금 달라서 제579행에 쓰인 글자를 授의 축천문자로 볼 수 있을지 꺼려지기도 하지만 일단 제579행의 授의 이체자를 授의 축천문자의 이체자로 간주한다.

授	 제579행(권제74)
	 제791행(권제75)
	 <small>唐 殷玄祚 契苾明碑</small>

### 5.3 신수대장경의 교감

『大正新修大藏經』의 『80화엄경』에는 정창원본이 [聖乙]이란 약호로 교감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반영된 내용 중에는 잘못된 곳이 있다. 여기서는 『신수대장경』의 권제72-80의 교감에서 정창원 『화엄경』과 관련하여 잘못 인용된 교감 내용만 지적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신수대장경의 교감의 성격 특히 『80화엄경』의 권제72~80의 교감 내용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3.1 권제72의 교감

##### 5.3.1.1 정창원본 0073행의 ‘感所’의 주16)

정창원은 ‘咸’이 ‘感’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재조대장경에는 ‘咸來共’ 3자가 있으며 정창원에는 ‘感所’ 2자가 있다. ‘咸來共’은 동일한 부분이 있는

16) 신수대장경의 교감 내용을 제시할 때는 정창원본의 전체 행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교감 내용 중 글자가 잘못일 때는 해당 글자를 제시하였고, 절략 내용이 잘못일 경우에는 게재된 마지막 두 글자와 절략된 첫 두 글자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권제73의 제244행에서 절략된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절략이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게재된 마지막 두 글자 ‘像身’과 절략된 첫 두 글자 ‘時善’을 제시하여 ‘像身/時善’으로 제시한다.

돈황사본(p2159의 背面)과 金藏 廣勝寺本에도 ‘咸來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단지 ‘咸’이 ‘感’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한 신수대장경의 교감 내용은 잘못이다.

### 5.3.2 권제73

#### 5.3.2.1 정창원본 0244행의 ‘像身/時善’

신수대장경에는 ‘現隨衆生心普令得見身’부터 ‘現遠離塵暗法性身’까지 140자가 절략되었다고 되어 140자가 절략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現普智照法明了身, 現究竟無患無熱身, 現不可沮壞堅固身, 現無所住佛力身, 現無分別離染身, 現本清淨法性身’이 더 절략되었기 때문에 절략된 글자수는 185자이다.

#### 5.3.2.2 정창원본 0265행의 ‘汝說’

신수대장경의 주에는 정창원본에 ‘여설’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있다. 아마도 신수대장경 교감상의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 5.3.2.3 정창원본 0410행의 ‘通門/尔時’

신수대장경에는 ‘種種神通門’부터 ‘復得無量解脫方便’까지 126자가 절략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앞의 ‘種種神通門’은 게재되어 있으므로 절략된 글자 수는 121자이다.

### 5.3.3 권제74

#### 5.3.3.1 정창원본 0457행의 ‘善根/何等’

신수대장경에는 ‘不疲不懈’부터 ‘順一切智眞實義境’까지 81자가 절략된 것으

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76자가 절략되었다.

#### 5.3.3.2 정창원본 0475-0476행의 ‘生藏/善財’

신수대장경에는 ‘一切三世國土中’부터 ‘得是自在受生解脫門’까지 330자가 절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절략된 글자수는 292자이다.

#### 5.3.3.3 정창원본 0582-0583행의 ‘提心/善男’

신수대장경에는 ‘專求佛功德’부터 ‘稱揚不可盡’까지 588자가 절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14자이다.

### 5.3.4 권제76

#### 5.3.4.1 정창원본 0959-0960행

신수대장경에는 두 개의 주를 통해서 749자와 17자가 절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창원본의 제960행과 961행에 걸쳐서 ‘如是乃至樓至如來在賢劫中於此三千大千世界’ 등 20자는 절략되지 않았다.

#### 5.3.4.2 정창원본 0987-0988행의 ‘善男子’

신수대장경에는 ‘善男子’가 절략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이 단락의 ‘善男子’가 절략된 것이 아니라 앞 문단의 ‘善男子~功德行’의 ‘善男子’가 절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절략을 할 때는 동일한 문단을 절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앞 뒤 단락을 제시한다.

#### 5.3.4.3 정창원본 1025행의 ‘唱波字時’의 주

신수대장경에는 ‘唱波字時’부터 ‘一切法輪差別藏’까지의 561자가 절략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唱波字時 入般若波羅蜜門 名普照法界’까지의 16자는 정창원본문에 실려 있다. 그러므로 정창원 『화엄경』에서 절략된 부분은 545자이다. 그런데 정창원 『화엄경』에서 절략된 이 부분과 비교할 수 있는 돈황본 北0068과 S.7113의 이 부분을 보면 北0068에서는 ‘時入般若波羅蜜門名無邊差別門唱波字時入般若波羅蜜門名普照法界唱者字時’ 부분이 없다. 또 S.7113에서도 ‘名普照法界唱者字時入般若波羅蜜門’ 부분이 없다.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으로 보이나 특기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밝혀 둔다.

#### 5.3.4.4 정창원본 1026행

신수대장경에는 정창원본에서 ‘施’자가 ‘施’자로 되어 있다고 주가 달려 있으나 이 부분은 정창원본에서 절략된 부분에 해당되므로 이 주는 잘못된 것이다.

#### 5.3.4.5 정창원본 1028행

신수대장경에는 ‘善男子! 我唯知此’를 무시하고 ‘善知衆藝菩薩解脫’부터 ‘善男子我唯知此 無依處道場解脫 如諸菩薩摩訶薩一切無著功德行 而我云何盡能知說’ 구절의 ‘善男子我唯知此’까지가 절략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善男子我唯知此’는 절략된 부분에 포함되는 구절이므로 ‘善男子我唯知此’부터 ‘又能出生一切智性速疾神通無盡故’까지 561자가 절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 5.3.4.6 정창원본 1039행

신수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절략된 것으로 주를 달았으나 이 부분은 ‘善男子! 我唯知此無著念淨莊嚴解脫。如諸菩薩摩訶薩，獲無所畏大師子吼，安

住廣大福智之聚；而我云何能知能說彼功德行?’ 한 구절이 절략된 것으로 주를 다는 것이 옳다.

### 5.3.5 권제77

#### 5.3.5.1 정창원본 1086행

신수대장경에는 ‘又欲令彼同受生’부터 ‘顯示菩薩處處受生了一切生皆無相故’가 절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云何修菩薩道’부터 ‘云何事菩薩善知識’까지와 ‘菩薩云何行菩薩行’부터 ‘云何事菩薩善知識’까지가 절략되어 있다.

#### 5.3.5.2 정창원본 1147행

신수대장경에는 ‘復憶往世起諸妄想’부터 ‘復觀’까지 절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復觀’은 절략된 것이 아니므로 ‘生大歡喜’까지 절략된 것이다. 그러나 절략된 글자수는 170자로 옳다.

#### 5.3.5.3 정창원본 1170행

신수(인쇄본)에는 ‘知質如像故, 知聲如響故, 知境如夢故, 知業如幻故。了世心現故, 了果因起故, 了報業集故, 了知一切諸功德法皆從菩薩善巧方便所流出故’까지 56자가 절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5자가 옳다.

### 5.3.6 권제78

#### 5.3.6.1 정창원본 1331행

신수에는 波羅蜜과 尗時 사이의 ‘則能增廣一切諸行, 則能圓滿一切大願, 則能

超出一切魔業, 則能承事一切善友, 則能清淨諸菩薩道, 則能具足普賢諸行’ 48자가 절략 부분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 5.3.6.2 정창원본 1448행

신수대장경에는 69자가 절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4자가 옳다.

### 5.3.6.3 정창원본 1354행

신수대장경에는 有爲故와 菩提心 사이의 ‘菩提心者, 如無生根藥, 長養一切諸佛法故; 菩提心者, 猶如龍珠, 能消一切煩惱毒故; 菩提心者, 如水清珠, 能清一切煩惱濁故 菩提心者, 如如意珠, 周給一切諸貧乏故; 菩提心者, 如功德瓶, 滿足一切衆生心故; 菩提心者, 如如意樹, 能雨一切莊嚴具故; 菩提心者, 如鵝羽毛, 不受一切生死垢故; 菩提心者, 如白[疊\*毛]線, 從本已來性清淨故’ 129자가 절략 부분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 5.3.6.4 정창원본 1358행

신수대장경에는 魔軍故와 菩提心 사이의 ‘菩提心者, 猶如利鋸, 能截一切無明樹故; 菩提心者, 猶如利斧, 能伐一切諸苦樹故; 菩提心者, 猶如兵仗, 能防一切諸苦難故; 菩提心者, 猶如善手, 防護一切諸度身故; 菩提心者, 猶如好足, 安立一切諸功德故; 菩提心者, 猶如眼藥, 減除一切無明翳故; 菩提心者, 猶如鉗鑷, 能拔一切身見刺故 菩提心者, 猶如臥具, 息除生死諸勞苦故; 菩提心者, 如善知識, 能解一切生死縛故; 菩提心者, 如好珍財, 能除一切貧窮事故; 菩提心者, 如大導師, 善知菩薩出要道故’ 176자가 절략 부분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 5.3.6.5 정창원본 1416행

신수대장경에는 明黑暗과 善男子 사이의 ‘善男子！譬如帝青大摩尼寶，若有爲此光明所觸，卽同其色。菩薩摩訶薩菩提心寶亦復如是，觀察諸法迴向善根，靡不卽同菩提心色’ 52자가 절략 부분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 5.3.6.6 정창원본 1448행

신수대장경에는 ‘善男子’부터 ‘應知卽是無數天人衆菩提華所生之處’까지 69자가 절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4자이다.

### 5.3.6.7 정창원본 1489-1491행

‘善男子！譬如清淨摩尼妙寶，眼有翳故見爲不淨。菩薩摩訶薩菩提心寶亦復如是，無智不信謂爲不淨’ 등 40자가 정창원본에서 절략되지 않았으나 신수대장경은 이 부분의 앞뒤를 포함하여 절략된 것으로 되어 있다.

### 5.3.6.8 정창원본 1508-1510행

‘善男子！如金剛杵，諸大力人皆不能持，唯除有大那羅延力。菩提之心亦復如是，一切二乘皆不能持，唯除菩薩廣大因緣堅固’의 49자가 정창원본에서 절략되지 않았으나 신수대장경은 이 부분의 앞뒤를 포함하여 절략된 것으로 되어 있다.

## 5.3.7 권제79

### 5.3.7.1 정창원본 1584행

신수대장경에는 ‘譬如有入，爲龍所持，自謂是龍，入於龍宮，於少時間，自謂已

經日月年載。善財童子亦復如是，以住菩薩智慧想故，彌勒菩薩所加持故，於少時間謂無量劫。譬如梵宮，名：莊嚴藏，於中悉見三千世界一切諸物不相雜亂。善財童子亦'의 89자가 절략되어 있음이 나타나 있지 않다.

### 5.3.8 권제80

#### 5.3.8.1 정창원본 1668행

신수대장경에는 '見普賢身一一毛孔'부터 '成一切智'까지 761자가 절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見普賢身一一毛孔，出一切世界微塵數光明雲，遍法界、虛空界、一切世界，除滅一切衆生苦患，令諸菩薩生大歡喜'는 절략되지 않았다. 그러나 절략된 글자수 761자는 옳다.

#### 5.3.8.2 정창원본 1678-1679행

신수대장경에는 '善財童子'가 절략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절략되지 않았다.

#### 5.3.8.3 정창원본 1690행

신수대장경에는 '爲集一切智福德具故'부터 '一一劫中'까지 121자가 절략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一一劫中'은 절략되지 않았다. 그러나 절략된 글자수 121자는 옳다. 신수대장경에는 '及是善財童子從初發心'부터 '慎勿於此懷疑念'까지 3325자가 절략되어 있다는 것을 주에서 밝히지 않았다.

## 6. 결 론

東大寺 『花嚴經』의 掲載率이 29.4%인데 반해 正倉院 『花嚴經』의 掲載率이 44.2%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正倉院 『花嚴經』의 본문을 미처 보지 못한 채 山本信吉(2006)에 제시된 권수 부분과 권미 부분으로 正倉院 『花嚴經』의 모습을 먼저 그려 보았으며, 두 문헌 중 東大寺 『花嚴經』을 대상으로 절략 양상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正倉院 『花嚴經』의 게재율은 東大寺 『花嚴經』의 게재율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했다. 필자가 그러한 예측을 한 것은 東大寺 『花嚴經』이 花嚴經에서 敎學的인 부분이 언급되는 부분이라는 점과 여러 가지 품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正倉院 『花嚴經』은 入法界品 한 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가 그마저도 전체 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절략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예측은 正倉院 『花嚴經』 권제72에 대한 교감 작업을 하면서 의문에 싸이게 되었다. 앞의 <표 1>에서 제시하였듯이 권제72의 掲載率이 正倉院 『花嚴經』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권제72가 화엄 교학의 관점에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은 게재율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바로 이 점이 東大寺 『花嚴經』과 正倉院 『花嚴經』의 掲載率을 설명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東大寺 『花嚴經』은 正倉院 『花嚴經』에 비해 화엄 교학적으로 비중이 더 높은 부분이면서 동시에 많은 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正倉院 『花嚴經』은 入法界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엄 교학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東大寺 『花嚴經』보다 正倉院 『花嚴經』의 掲載率이 높은 것은 東大寺 『花嚴經』 또는 正倉院 『花嚴經』의 편집자는 교학적 내용만큼이나 스토리의 전개에 대한 축약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문헌>

金星周. “東大寺『華嚴經』卷第12-20의 節略 樣相.” 『書誌學報』 제39호(2012. 6). 105-130.

無比 지. 『華嚴經(懸吐科目)』. 서울: 民族社, 1997.

배부성 편찬, 한정섭 과주. 『선재동자 구도행각』. 서울: 불교정신문화원, 2006.

봉선사 능엄학림 편. 『화엄경청량소 과도집』. 서울: 동국역경원, 2003.

山本信吉. “聖語藏『大方廣佛華嚴經 自卷七十二至八十』の書誌的考察.” 『正倉院紀要』 第28号(2006. 8). 141-154.

山本信吉. “日本における新羅寫經の發見と古代日本・朝鮮寫經.” 『書誌學報』 제39호(2012. 6). 45-59.

森本公誠 지. 『善財童子 求道の旅』. 東京: 朝日新聞社, 1998.

小林芳規. “角筆による新羅語加點の華嚴經.” 『南都仏教』 제91호(2008. 8). 1-18.

李東榮(性法) 지. 『善財童子의 求法行脚 - 華嚴經 要解 -』. 성남: 南漢山城 望月寺, 1995.

吞虛 지. 『華嚴經(懸吐本)』. 서울: 圖書出版 教林, 2009.

海住 지. 『화엄의 세계』. 서울: 민족사, 1998.

海住. “東大寺 華嚴經 卷12-20의 節略樣相과 思想的特徵.” 『불교학보』 제65호(2013. 8). 1-21.

國譯一切經 『華嚴經』.

고려대장경 연구소 지식베이스 사이트 : <<http://kb.sutra.re.kr/ritk/index.do>>.

東國大 譯經院 한글大藏經 사이트 : <<http://www.tripitaka.or.kr/>>.